

웬비어 가족, 부검 반대... 북미 대치 장기화

신시내티 주병원 시신 외관 검사 “식중독·부상 징후 모두 없어” 사인 규명 미궁 빠질 가능성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유가족이 웬비어의 부검에 반대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하이오 주 해밀턴 카운티 검사관실은 이날 성명을 내 유가족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 외관에 대한 검사만 했다고 밝혔다.

검사관실은 웬비어의 귀국 항공기에 동승했던 응급의료팀과 그가 입원했던 신시내티 주립대병원으로부터 의료 기록을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웬비어의 방사선영상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그를 치료했던 신시내티 주립대 병원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면담해 사망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사관실은 성명에서 “현시점에서 웬비어가 사망한 원인과 방식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살펴봐야 할 추가 의료 기록과 (방사선) 영상은 물론 면담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관실 업무 일지에도 웬비어의 사망원인을 적는 공간에는 ‘미결’(pending)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당초 검사관실은 웬비어를 부검해 20일 저녁이나 21일께 예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의 반대에 따라 시신과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따라서 웬비어의 정확한 사인 규명이 미궁 속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식중독인 보톨리누스 중독증에 걸려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설명밖에 없다.

그러나 신시내티 주립대병원의 검사 결과 보톨리누스 중독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같은 부상의 명확한 징후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MRI 영상에서 나타난 뇌 손상 패턴이 심폐정지의 경우와 일치한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북측의 신경과전문의들은 웬비어의 혼수상태를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약물 과다복용이나 목조르기, 고문 등에 대한 일리 있는 반증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의 앤드루 조지프슨은 “일정 시간 동안 뇌에 혈류나 산소, 또는 둘 다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젊은 나이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이 밖에 패혈증과 같은 감염이 발전하는 경우, 혈전이 폐로 이동하는 경우 등이 가능성 있는 가설로 꼽힌다.

다만 신시내티 주립대병원의 발표와 달리 보톨리누스 중독증을 원인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여러 달이 지나면 발병 증거를 찾기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북한 측 설명이 맞더라도 웬비어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뇌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듀크대 신경학 교수인 대니얼 라스코워츠가 밝혔다.

라스코워츠 교수는 “웬비어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다는 점에서 뇌사 상태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1년 넘게 시간이 지나 의미있는 회복을 시킬 가능성이 작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에도 태연 에마누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올림피크 리옹의 주장 웬디 레나드로부터 유니폼을 선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롱 기업 특혜 의혹... 검찰 압수수색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장관 재임 당시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해당 업체와 정부 산하기관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방향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20일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 산하 경제범죄수사본부(O-CLCICIFF)는 이날 홍보대행사 아바스와 프랑스 경제부 산하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의 사무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는 ‘비즈니스 프랑스’가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박람회(CES)의 행사를 경영입찰 없이 아바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경제부 최고 책임

자는 마크롱 현 대통령이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바스가 주최한 비즈니스 프랑스의 행사에는 마크롱 대통령도 장관 자격으로 직접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

검찰은 대선 전인 지난 3월 15일 해당 사안이 부정정탁이나 특혜 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종의 내사인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회계감독원(IGF)은 지난 2월 이 사안에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냈고, 폭로전문 주간지 르 카나르 앙제네의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비즈니스 프랑스의 대표는 현 노동장관인 뤼리엘 페니코였다.

의혹이 제기되자 마크롱의 후임자인 미셸 사랑 전 경제장관은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치욕스러운 일” 작정한 트럼프, 북한 연일 비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기자회견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오토 웬비어(22)씨가 송환된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연일 북한을 공개적으로 성토했고 나섰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을 거둬들여 강도 높게 비판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향후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기자들과 만나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은 절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웬비어를 집에 더 일찍 데려왔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웬비어의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겪어 내야 했던 일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이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올리면서 트위터에 “우리는 미국의 가장 최근 희생자(웬비어)를 애도하면서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웬비어의 사망 직후 공식성명을 통해 “북한에 의한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인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면서 “오토의 가족과 친구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배려와 기도를 보낸다”고 조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사우디 ‘실세 왕자’ 빈살만, 왕위 계승 1인자로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21일(현지시간) 친아들인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31) 제2왕위계승자 겸 국방장관을 제1왕위계승자로 책봉한다는 직명을 내렸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21일 열린 왕위계승위원회에서 위원 43명중 31명이 제1왕위계승자 교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살만 국왕은 칙령 발표와 함께 왕실과 국민에 모하마드 빈살만 제1왕위계승자에 총서약을 요청함으로써 왕위계승 서열 교체를 공식화했다.

살만 국왕의 현재 82세의 고령임을 고려하면, 모하마드 빈살만 왕자는 30대에

중동의 맹주이자 세계 최대 ‘석유 왕국’인 사우디의 국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는 왕위 계승서열 2위였지만, 사우디 왕정을 지탱하는 군과 에너지 산업을 관장해 ‘실세 왕자’로 불렸다. 외국 언론은 그를 ‘MBS’라는 약칭으로 부르면서 살만 국왕의 심복으로 평가한다.

살만 국왕은 2015년 1월 국왕에 즉위한 뒤 내각의 주요 고위직에 40~50대의 젊은 모하마드 빈살만 왕자의 측근을 임명하고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 면담에 그를 보내 힘을 실었다. 친아들을 차기 국왕으로 만들기 위해 일찌감치 후계 구도를

설계한 셈이다.

이 때문에 사우디 왕실 안팎에선 모하마드 빈살만 왕자가 결국 왕위 계승 서열을 뒤집고 차기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분분했다.

그가 사우디의 반(反)이란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인 만큼 사우디와 이란의 패권경쟁과 긴장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모하마드 빈나예프 알사우드(58) 내무장관은 모든 공적 지위가 박탈됐다. 그는 모하마드 빈살만 왕자보다 왕위계승 순서에서 앞서지

만, 권력 구도에서 밀린다는 평을 받았다.

모하마드 빈나예프 왕자는 살만 사우디 국왕의 조카이자 모하마드 빈살만 왕자의 사촌형이다. 그의 선친 나예프 빈알두이즈 왕자도 2011년 제1왕위계승자에 책봉됐지만 1년 뒤 사망하면서 살만 현 국왕에게 이양됐다. /연합뉴스



모디 총리와 함께 요가 21일(현지시간) ‘제3회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주도인 르크나우에서 단체 요가 행사가 열린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앞쪽 가운데)가 시민들과 함께 요가를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5년 6월 21일 제1회 세계 요가의 날에 이어 3년째 시민 수만 명과 함께 단체 요가 시범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근 린 시 설
▶서구 서창동 서창치안센터 인근 토지 90평 감평가 74,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점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평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남평읍인근 토지 276평 감평가 83,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평가 1,227,000,000 최저가 1,227,000,000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산234 토지 11,970평 감평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평 건물 30평 감평가 239,000,000 최저가 239,000,000
▶나주 남평읍 교촌리 도시지역 생산녹지 대로점 토지 1182평 감평가 715,000,000 최저가 501,000,000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종교시설 토지 1575평 건물 183평 감평가 1,201,000,000 최저가 841,000,000
▶나주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구 토지 10399평 감평가 2,678,000,000 최저가 2,678,000,000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인근 토지 128평 건물 251평 감평가 885,000,000 최저가 619,000,000
▶북구 삼각동 농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점 토지 210 감평가 295,000,000 최저가 295,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호텔 토지 978평 건물 1295평 감평가 3,787,000,000 최저가 993,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평가 58,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평가 49억 최저가 1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